

광주 AI영재고 설립 본격화...2027년 3월 개교 목표

재정 부담 비율 국비 70%·시비 30% 결정...내년 하반기에 착공 AI기본법 국회 통과하면서 AI집적단지 조성·지원 근거도 마련

광주시에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30일 "정부와 광주 AI 영재고 설립에 필요한 재정 부담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 규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국비 31억 7500만원)가 반영되면서 힘을 받았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이견과 내년 국가 예산에 건축비 미반영으로 설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총사업비 871억원의 70%(611억원)는 정부가, 30%(260억원)

는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주 AI 영재고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설계 공모 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학교 부지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으로, 연면적 1만5990㎡에 학습연구동(지하 1층~지상 5층)과 기숙사동 2개 규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GIST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인재·기반 시설(인프라)·기업 삼박자를 고루 갖춘

AI 대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AI 집적단지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 2025년 AI 2단계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AI 기술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원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광주 첨단지구 소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지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정부 지정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주 첨단지구 내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조감도.

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보니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방문 간호 신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6개 분야 53개 시책 새롭게 시행

광주시는 "2025년 새해에는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방문 간호를 신설한다. 또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해 일상돌봄서비스, 경로당 양극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아동·보육 분야=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도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청년 분야=지역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를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도 확대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를 3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한다. 1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도 4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또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생활기반 분야=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를 통해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 30(정년)~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를 할인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분야=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보훈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을 추가하고 지급액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역시 각각 11만5000원(65~79세), 15만5000원(80세 이상)으로 인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현대 광주' 건축·경관 심의 통과...내년 상반기 착공

보행동선·개방성 강화 등 조건부 의결...건축 인·허가 절차 본격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건축·경관 심의를 통과해 건축허가 절차에 본격 진입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건립 예정인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안건을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건축·경관계획 외에도 사업부지 주변의 보행 동선 연계 방안, 복합쇼핑몰만의

특색있는 내·외부 공간 구성, 광주천과 복합쇼핑몰의 보행 연계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보행 동선, 개방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 심의를 통과하면서 더현대 광주는 광주시 행정절차를 마치고 자치구(북구)의 건축인허가 절차만 남기게 됐다.

내년 상반기 북구의 건축허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첫 삽을 뜨게 된다. 2028년 개장이 목표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 2364㎡에 높이 60m, 길이 201m, 폭 116m의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쇼핑·문화·여가 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구성 중이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더현대 광주는 광주를 팔짱 도시로 바꿀 복합쇼핑몰 3층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삽을 뜰 예정"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 시그니처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좋은 일자리 기업·우수기업인 선정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 개최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광주형일자리기업 4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3개사와 꾸준한 연구개발로 매출 확대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 5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디에이치글로벌, ㈜씨엔텍, ㈜화인씨엔에스, ㈜동진기업 등 4개사다.

광주시는 적격성 검토, 서류심사, 현장점검,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4개사를 선정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의 4개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이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13종의 행정·재정적 특전을 2년간 제공한다.

또 올해 일자리우수기업에는 ㈜쿠보텍, ㈜미봉하이텍, ㈜에이치티솔루션, ㈜아름다운 상상, 대신네트웍스㈜, ㈜이엔텍, ㈜옵토닉스, ㈜비에이에너지, ㈜선우그래픽, ㈜주디마리, ㈜스룹, ㈜지니온, ㈜태영테크 등 13개사가 선정됐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광주에 소재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 행정·재정적 특전을 제공한다.

이들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무역보험보

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추가지원 등 총 15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에는 기승도 ㈜에니트 대표, 문영태 ㈜서치 대표, 박세준 ㈜동방엔지니어링 대표, 조미영 ㈜뉴런모터스 대표, 채인원 예코피스 ㈜대표 등 5명이 선정됐다.

우수중소기업인은 지역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증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시책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58명을 선정했다.

우수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이차차액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수출진흥자금 용자액 추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1종의 금융·세제·행정 혜택을 2년간 제공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